

시계 요정 꾸꾸와 타임 캐슬

👑 <한 줄로 정리하기!>

책의 내용을 떠올려 보고 아래의 칸을 채워 보세요.



김우정 글 | 심윤정 그림 | 책따지 펴냄

주요 사건

어떤 일이 일어났나요?

등장인물

누가 나오나요?

느낀 점

무엇을 느꼈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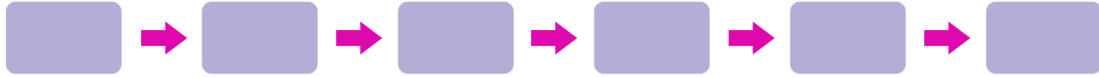
시계 요정 꾸꾸와
타임 캐슬

상상, 짐작

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?



🌸 다음은 이야기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. 이야기를 떠올리며,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.

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㉠ 현서는 생일날 런던 시계탑 미니어처를 선물받았다. | ㉡ 시계 요정은 현서를 데리고 타임 캐슬로 향했다. |
| ㉢ 현서는 시간의 방에서 할아버지와 추억을 보았다. | ㉣ 채집통에 갇힌 시계 요정은 현서와 손바닥을 맞대었다. |
| ㉤ 현서는 생일날 밤 시계 방에서 시계 요정을 발견했다. | ㉥ 현서는 붉은 시계의 톱니바퀴에 낀 보석과 깃털을 빼냈다. |

🌸 현서는 시계 방에서 시계 요정을 잡아 가두었습니다. 현서가 시계 요정을 놓아주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요?

.....

.....

🌸 현서가 반복되는 생일을 보내고 있을 때 현서의 친구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간략히 적어 보세요.

유진

.....

건우

.....

민준

.....

🌸 현서는 시계 요정 꾸꾸와 손바닥을 맞대고 친구들의 하루를 보게 되었습니다. 그때 현서의 마음은 어떠했나요?

.....

.....

🌸 아래 문장은 이야기 속에서 꾸꾸가 현서에게 한 말입니다.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찾아 써 보세요. (힌트 : 38쪽)

“현서야, 흐르는 시간을 억지로 막으면 안 돼.

.....,

그 속에서 우리가 을 느낄 수 있어…….”



- 🌱 만약 내일이 오지 않고 똑같은 하루가 끝없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.

.....

.....

- 🌱 현서는 시간의 방에서 자신이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행복했던 추억을 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행복했던 일과 가장 슬펐던 일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.

.....

.....

- 🌱 다음은 타임 캐슬에 다녀온 뒤 현서와 꾸꾸가 나눈 대화입니다. 밑줄 친 문장은 어떤 의미일까요?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.

과종시계에서 나온 꾸꾸는 현서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바로 날아올랐다. 활짝 펼친 은빛 망토에서 은빛 가루가 내려와 현서를 감쌌다. 현서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.

“어? 내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어.”

“몸은 예전 그대로지만, 마음의 키는 훌쩍 자랐을걸?”

.....

.....

- 🌱 10년 후 미래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.

.....

.....

실력이 쑥쑥 날말 퀴즈



다음은 <시계 요정 꾸꾸와 타임 캐슬>에 나오는 날말입니다.

다음 날말에 알맞은 뜻을 선으로 이어 보세요.

까무룩 27쪽

투시력 12쪽

비시시 14쪽

찰가당 63쪽

회중시계 15쪽

광활한 45쪽
(광활하다)

막힌 데가 없이 트이고 넓다.

예 잠시 후 눈을 떠보니, 우주에 온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.

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웃는 모습.

예 오늘 하루를 돌아보자 웃음이 새어 나왔다.

작고 단단한 쇠붙이 따위가 조금 가볍게 맞부딪쳐 울리는 소리.

예 마침내 톱나바퀴들이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.

막힌 물체를 환히 꿰뚫어 보거나 대상의 내포된 의미까지 보는 능력.

예 어떻게 알았냐고? 이 생겼거든. 나 대단하지?

정신이 갑자기 흐려지는 모양.

예 하지만 그 몇 분을 참지 못하고 12시가 되기 전에 잠 들어 버렸다.

몸에 지닐 수 있게 만든 작은 시계.

예 뼈꾸기시계랑 부엉이 시계는 언제 봐도 멋있어. 목걸이 시계랑도 맘에 쏙 들고.

빈칸에 어울리는 날말을 [보기]에서 찾아 써넣으세요.

[보기]

머리말

귀밀

짐작

한시

아랑곳

금세

81쪽

13쪽

83쪽

46쪽

26쪽

9쪽

[1]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어 치운 현서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.

[2] 선물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현서의 입이 점점 벌어지더니 에 걸렸다.

[3] 현서는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다.

[4] 유진이의 톱툭 부은 눈을 본 현서는 유진이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할 수 있었다.

[5] 현서는 주머니에 넣어 둔 독수리 모형을 꺼내 쓰다듬고는 에 올려놓았다.

[6] 얼른 가 봐야지. 가 급해.